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돌반지를 훔쳐 팬티 100장 사다-2

▶지난호에 이어서

애들 옷가지를 사거나 생활비가 떨어지면 하나둘 전당포에 잡히거나 금방에 팔았다. 이제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지금도 아내에게 늘 욕을 먹는 일 중에 하나다. 지금도 아내는 도대체 그걸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핀잔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걸 어디다 썼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 글을 보면 알게 될 터이다. 한번은 빚이 늘어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공모한 '자연 체험 학습장 프로젝트'에 응모했다. 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과 함께 닭, 오리, 돼지, 토끼를 키우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였다.

농장에 나무를 심어 아름답게 꾸미고, 발효 돈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환경정화처리 장치도 만들었다. 그것은 내가 화공학 미생물 처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왔다. 아마 5년 동안에 수천 명이 오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비 지출이 힘들었다. 애들과 생활하면서 쓸 때마다, 먹일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만 했다. 음식을 사와서 먹일 때 그 모습을 찍고,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제일 싫어했다. 나도 싫었다. "애들아!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선생님, 그렇게 해요. 저렇게 하지 말게요. 재미도 없고요, 맨날 억지 사진 찍으라고 하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부족했지만 서로 간에 더 우애했고, 감사했고 자부심이 커졌다. 특히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다. 물론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갖 욕설이 낭자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심한 욕을 퍼부었다. 어떤 때는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애들이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욕 좀 그만하세요. 내가 화난 건데 왜 선생님이 욕을 하세요?"

나는 애들보다 더 심하게 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들 눈에는 내가 선생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은 우리보다 지능이 좀 더 낮은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는다. 난 그랬다. 꼰대 노릇을 하기 싫었다. 상처받은 그 애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리고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공동학습장에서 책을 읽히고 싶었다. 여전히 돈은 없었다. 한 달 월급 반을 쪼개 헌책방에서 아이들과 책을 골랐다.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독서력이었다. 가는 서점마다 구입한 것은 대부분 만화였다. '

선데이 서울'도 샀다. 좀 고상한 책을 읽어라고 했더니 '콩쥐팥쥐', '흥부전'을 골랐다.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밤에 돌려가며 읽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책보다는 내 이야기를 더 재밌어 했다. 캄캄한 밤에 불을 끄고 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이불처럼 깔아 놓았다. 아이들은 홀러덩 팬티만 입고 방을 뒹굴면서 키득거리고, 웃고, 떠들면서 밤이 깊어갔다.

슬픈 이야기에 소리없이 우는 애도 있었다.

잔인하게 동물을 괴롭힌 애도 있었다. 토끼의 눈을 빼서 죽이기까지 했다. 나는 그래도 나무라지 않았다. 친구들도 그 아이를 싫어했는데 어느 날 밥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동혁이는 어디 갔어. 왜 밥 먹으러 안 오지?" "선생님, 살금살금 가 볼까요?"

▶다음호에 계속

선교칼럼 84

장찬익 선교사
아일레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5단계.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2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자아상을 주셨습니다. (딤후3:17, 엡2:10, 딤후2:5, 막9:23, 빌4:13)

셋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가난과 저주와 불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징계에 대한 예수님의 피흘리신 대가지불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자유와 부요함을 얻게 되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꿈과 희망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갈3:13, 히6:14, 갈5:1, 고후8:9, 마5:13-16, 행2:17)

넷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영육간에 모든 장애와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8:17, 엡4:22-24, 벧전2:24)

다섯째는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피흘리신 대가지불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5:24, 11:25, 14:6)

이와같이 우리는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음의 그늘들을 이겨내는 새생명의 새사람의 삶 5가지를 풍성하게 얻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원과 목표와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지 말지, 누릴지 안 누릴지는 당신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9:2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천국, 새생명의 새사람의 삶을 선물로 얻고 선물로 얻은 구원, 천국, 새생명의 새사람의 삶 5가지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자의 상을 얻는 것처럼 경기하여 구원, 천국, 새생명의 새사람의 삶 5가지를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신 새사람이 옛 사람을 날마다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사랑의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숙한 새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6:10, 엡4:22-24) 그리하여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고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천국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무슬림에게 전하는 복음 5단계가 이슬람선교의 돌파구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득일 교수 Q&A 시리즈 2_ 35 양과 염소

유월절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출12:5).양과 염소는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성경은 양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동물로 평가하고, 염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동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25:32~33).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명명하지만(요1:29) 하나님의 "어린 염소"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염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양과 함께 염소도 죄를 속하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레1~22장). 더욱이 염소가 두드러진 경우는 대속죄일에 여호와와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질 때입니다(레16:8).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물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히브리서에도 양이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염소가 신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인 결정적인 본문은 주님의 재림 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는데, 왼쪽으로 구분된 자들은 염소로서 영원한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마25:32~33). 심판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겔34:170

여기서 "양 떼"로 번역된 히브리어 '촌'은 양과 염소가 섞인 가축떼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양과 양 사이도 구분하는데 그 내용은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살진 양은 질서를 짓밟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착취하는 계층을 의미하고 약한 양은 힘 없이 착취당하는 계층을 가리킵니다. 목자로 비유된 하나님은 강한 양인 약탈자에게서 약한 양인 약자를 보호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으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숫양과 숫염소의 차이는 애매합니다.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할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은 에스겔의 본문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의 구분은 일상에서 온 것입니다. 목자는 가축 떼에서 이 둘을 구분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밤에는 양들이 서늘한 곳에 머물지만 염소는 모여서 따뜻하게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낮에 풀을 뜯을 때도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공격적인 이미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겔34:21)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속죄양으로서 실제적인 의미와 양의 순종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란은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신득일 지음/기독교문서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목사 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브수적 신앙체계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 든지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시역)	신 학 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ccc.or.kr)
- ▶ 주야간반 :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 부부학생특혜
-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 교회개척,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 수시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